쓰레기 버리기 귀찮다 고층서 내던져
음식물 찌꺼기·애완동물 사체 투기도

‘아파트 몰상식’ 이게 뭡니까

담배꽁초나 오물 투척, 층간 소음, 애완동물 등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일명 ‘아파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오물 투척을 참다못한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층간소음이나 애완동물 문제로 폭력 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지면서 시민의식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7일 광주시 남구의 모아파트 옥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래로 버려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8일 밤 9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위에 버리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 차량 3대를 오염시키거나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것이 귀찮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음식물 쓰레기 안에 섞여 있는 김씨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담배꽁초, 쓰레기 등 오물투기로 인한 민원이 매주 2~3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을 외면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애완동물의 사체나 못쓰게 된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던져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물 파손 등의 피해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오물투기 등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주민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이다 보니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서구 유촌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2)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위층에 사는 양모(여·45)씨를 협박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층간소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박모(56)씨는 “과거 주민들이 조금씩 조심하고 양보하면 될 일들이, 이제는 폭력이나 고소·고발사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아파트 내 주민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개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능일 출근 1시간 늦춘다

광주·전남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0일 오전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가량 늦춰진다.

광주·전남경찰청과 광주시 등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13면〉

경찰은 시험일인 10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수험생 위주의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 광주경찰은 지역 36개 시험장에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438명, 순찰차·이륜차 145대를, 전남은 도내 7개 시험지구 51개 시험장에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663명과 순찰차 등 149대를 배치한다.

경찰은 시험 당일 ‘112 수험생 수송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둘 방침이다. 또 듣기 평가 시간대 소음 예방을 위해 오전 8시40분~8시53분 , 오후 1시10분~1시3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적 사용 자제 등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능 시험지 도착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7일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수능 문답지를 인수받아 창고로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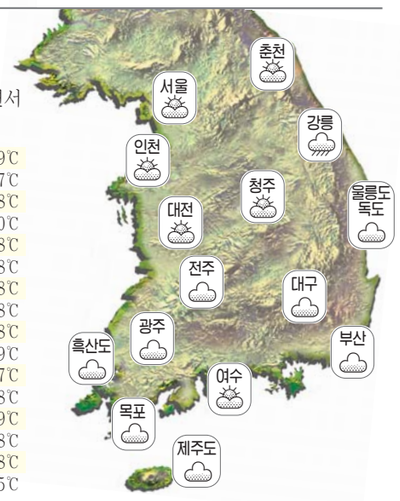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0분 해짐 17시 32분 달뜸 15시 52분 달짐 04시 28분

흐린 가을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다.

광 주	흐림	13/19℃
목 포	흐림	12/17℃
여 수	구름많음	15/18℃
나 주	흐림	12/20℃
완 도	흐림	12/18℃
구 례	흐림	11/18℃
강 진	흐림	12/18℃
해 남	흐림	12/18℃
장 흥	흐림	11/18℃
순 천	흐림	14/19℃
영 광	흐림	12/17℃
진 도	흐림	12/18℃
전 주	흐림	13/19℃
군 산	구름많음	12/18℃
남 원	흐림	12/18℃
흑산도	흐림	13/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12 12:46	05:39 18:10
여수	07:33 19:44	01:13 13: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 씨						
최저/최고	12/18	11/18	11/18	10/18	8/17	6/16

대교협 “등록금 평균 5% 인하 노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7일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와 등록금 문제 등과 관련, “평균 5% 등록금 인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숙명여대에서 150여개 대학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교과부가 9월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할 때 밝힌 안이 이미 5%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교협은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부가 진행 중인 국가장학금 유형 논의를 통해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룰이 나오면 학교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교과부의 제안처럼 5%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 학교에서 논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9월 초 밝힌 바 있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수능 추위 없다 광주 아침 최저 11도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0일 광주·전남지역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최고 18도, 여수·목포 등 전남은 14~17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소집일인 9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11~18도 분도포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최근 10년 간 가장 추웠던 수능일은 지난 2001년 0.6도, 2005년 1.1도, 2010년 1.9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기온이 높았던 수능일은 2003년 19.9도, 2008년 19.6도, 2002년 19.2도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http://www.kma.go.kr/weather/special/special-exam-03.jsp)에 수능 시험장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